

WHO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지정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확정 발표

간호사의 역할과 기여 인정하고 격려하는 의미
내년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맞아 존경 표현

국제간호협회의 날-널싱 나우 캠페인

“인류 건강에 헌신한 간호사 인정할 결정” 환영
각국 정부는 간호사에 대한 지원 행동으로 보여줘야

간호사 없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할 수 없다 각국 정부에서 간호사 핵심역할 인정하고 지원해야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에서 2020년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했다고 5월 24일 발표했다.

역사상 최초로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를 지정하는 방안은 올해 1월 열린 세계보건기구 이사회에서 제안됐으며, 총회 위원회 어젠다로 상정된 후 최종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하나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와 조산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또한 2020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인만큼 인류의 건강을 위해 공헌해온 간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2020년이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정해진 데 대해 국제간호협회의(ICN)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곧바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존재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위한 해를 지정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간호사와 조산사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WHO는 원래도 간호사와 조산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지만, 특별히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간호사와 조산사들에게 2020년을 헌정하게 됐다”면서 “ICN과 널싱 나우 캠페인에서 간호사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받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ICN과 널싱 나우 캠페인은 “2020년 지정은 계기로 잘 교육 받은 간호사들이 적정인력 배치될 때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 모든 나라가 알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세계 2천만 간호사와 함께 2020년 지정을 환영하며, 간호전문직이 인정받게 됐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보건요원에 있어서 간호사들의 기여를 알아본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선견지명과 해안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이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더욱 환영한다”면서 “나이팅게일이 등불로 간호사들을 밝혀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및 ‘보편적 건강보장(UH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어떻게 불을 밝혀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널싱 나우 캠페인 공동위원장 나이젤 크리스 경은 “WHO는 각 국가가 간호사와 조산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으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간호와 조산 분야에 투자하면 신속하게, 비용효과적으로, 질 높게 보편적 건강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 정부는 간호사와 조산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결정력 있는 행동을 통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라며 “이는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특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모든 국민이 그들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즉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실천목표에 해당된다.

널싱 나우(Nursing Now)는 2020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ICN과 WHO가 함께 추진하며, 버데트 간호재단(Burdett Trust for Nursing)에서 후원한다. 간호사의 역할 강화 없이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으며,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하고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캠페인은 버데트간호재단의 ‘Triple Impact’ 보고서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간호사가 건강상태 개선(Better Health), 양성평등(Greater Gender Equality), 경제상태 개선(Stronger Economies)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총회 시작에 앞서 제네바에 있는 국제간호협회의(ICN) 본부에서 모였다.

세계보건총회 참석한 신경림 간협 회장 간호현안 논의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제72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 참석해 간호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졌다.

세계보건총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총회로 194개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다. 총회에 맞춰 국제간호협회의(ICN)를 중심으로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이 모여 간호현안을 논의하며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총회는 UN 유럽본부 팔레 데 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 기간 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 WHO 간호정책수석(Chief Nursing Officer)이 만나는 자리가 5월 20일 오후에 마련됐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미팅에서 박능후 장관은 “간호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해 세계보건기구가 CNO를 임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 TF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에게 적절한 대우를 못해주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기꺼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TF는 시험기간을 거쳐 영구적인 조직으로 자리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열리는 CNO 글로벌 포럼에 한국에서도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로 간호정책수석은 “한국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내년 CNO 글로벌 포럼에 한국 보건복지부의 간호정책 책임자가 꼭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각국 정부의 CNO가 참석하는 글로벌 포럼은 2년마다 열리며, 2020년 5월 제9차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5월 22일에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ICN 아네트 케네디 회장, 하워드 캐튼 사무총장과 미팅을 갖고 간호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엘리자베스 아이로 WHO 간호정책수석(오른쪽)이 세계보건총회에서 만났으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왼쪽)이 함께 자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 법안이 발의됐으며, 반드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한간호 협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네트 케네디 ICN 회장은 “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ICN에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이뤄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ICN이 마련한 5월 20일 오전 브리핑 및 5월 21일 공식 오찬에 참석해 각국 간호협회 대표들을 만났으며, 널싱 나우 캠페인 공동위원장인 나이젤 크리스 경과 환담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6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ICN 국제학술대회에서 다양한 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총회 개최 전 행사로 열린 걷기대회(Walk the Talk),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 등에 참여했다. 스위스의 커뮤니티 널싱 현황과 운영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했다.

한편 이번 세계보건총회에는 의약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해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며 상호교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음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135년 역사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함께 할 능력 있는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국내 최초
JCI 재인증



국가고객
만족도 1위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글로벌
경쟁대상



【세브란스병원(신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 규 간 호 사 모 집

1. 모집내용

구 분	연세대학교 의료원[세브란스병원(신춘) 및 강남세브란스병원] 통합채용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자격 : 2020년 2월 간호학과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보호대상자(국가 보호대상자, 장애인 등)는 관련법에 따라 우대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는 자격사항에 필히 기재 * 남자지원자의 경우, 군 미필자도 지원가능
채용인원	0000명
온라인 입사지원 (Homepage)	1) 연세의료원 홈페이지(http://www.yuhs.or.kr) 접속 2) 채용정보 게시판의 “2020년도 신규간호사 모집” 선택 3) 입사지원서 작성(지원 시 희망근무지 선택 필요) * 희망근무지 : 1. 신춘세브란스 / 2. 강남세브란스 / 3. 모두 가능 (최종 합격 후 배치 시, 희망근무지 우선 고려 예정)
접수기간	2019년 5월 20일(월) ~ 6월 10일(월) 24:00까지 예정
구비서류 (면접시 제출)	1)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 후 ~ 마지막 학기(4년제 : 3학년 2학기, 3년제 :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점/석차(누적 평균값) 입력 필수) 2)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군 경력사항 기재 필요) 1부 4) 기타 관련 자격증, 여학 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주소 및 문의처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료원 종합관 5층 인사팀 ☎ 02-2228-1286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인성검사 / 1차면접전형 - 2차면접전형 - 신체검사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9년 6월 중순 이후 예정

4. 기 타

가. 합격자 발표 및 각 전형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www.yuhs.or.kr)에 게시됩니다.
나. 전형방법 및 일정은 의료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